

***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. ****

- 오늘부터 1부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.
- 진급식: Grundschule 입학: 이도현, 레나 브리휘너, 강나라
상급학교 진학: 채경준, 배지율, 정원, 이하임
- 제직회: 오늘 2부 예배 및 애찬 후 믿음방
- 여선교회월례회: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뒷편
- 새가족 환영: 다음 주일 2부 예배
- 190회 디아코니축제: 9월 13일 주일, „Alles, was Odem hat, lobe den HERRN!“
목회자 준비모임: 9월 3일(목)
- 매일성경 9,10월호가 반송되어 재배송 중에 있습니다.
- 빛나라 모임: 9월 2일(수) 14시 강판연 님 가정
- 라합2나라 모임: 9월 3일(목) 10시 30분 Hotel KO
- 귀가: 김학순, 오경민, 민경웅-박희영, 배진우-서정인
- 생일축하: 막스 오페르만, 김주호

◆말씀일기 일정

일/사38:1-22 월/사39:1-8 화/사사기1:1-10 수/삿1:11-21
목/삿1:22-36 금/삿2:1-10 토/삿2:11-23 일/삿3:1-11

- ◆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
성경 300독 대행진: 285독 (한상철, 정기승 1독)

◆ 예배위원 안내 ◆

	8월 30일	9월 6일	9월 13일	9월 20일
예배기도	배진우	김종권	디아코니축제	장혜진
안내위원	예배부			
봉헌위원	이선영 단주현	박성희 배진우		
애찬위원	밥상 넷	밥상 다섯	밥상 여섯	밥상 다섯



“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”(요 15:9)



주일예배 11:45 Teestube 소망방
14:00 Mutterhauskirche
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
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
청년부 15:30 Teestube 믿음방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믿음방



담임/ 손교훈 목사 Pfr. Dr. Kyo-Hoon Sohn
☎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교육/ 이동훈 목사 HP. 01525-2367 629
교육/ 박승은 목사 HP. 0157-3845 5550
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 8일 창립

뒤셀도르프선교교회

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

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
주 일 예 배

인도: 손교훈 목사

※입례송/Eingangslied	왕이신 나의 하나님	다 함 께
※예배부름/Eingangsgebet		인 도 자
※찬송/Gemeindelied	2장	다 함 께
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		다 함 께
성시교독/Wechselwort	교독문 48번	다 함 께
찬송/Gemeindelied	362장	다 함 께
기도/Gebet		배진우 집사
찬양/Chor	밤이나 낮이나	찬 양 대
성경봉독/Text zur Predigt	이사야 38:1-22	인 도 자
설교/Predigt	기억하소서	손교훈 목사
찬송/Gemeindelied.....	363장	다 함 께
봉헌/Kollekte.....		다 함 께
교제/Bekanntmachung.....		다 함 께
※주기도송/Vaterunser.....		다 함 께
※축도/Segen		손교훈 목사

※ 표는 일어섭니다.

교회 구좌

Ev.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

IBAN: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

▶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이사야 37:1-20 '기도의 정석'◀

역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다.

1.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다: "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갔고"(1).
2. 문제 상황을 직시했다: "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.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"(3).
3. 문제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를 받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: "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"(2).
4.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다: "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"(4).
5. 계속되는 위협 앞에서 거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: "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퍼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"(14-15).
6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불렀다: "만군의 여호와여,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.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"(16).
7.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실을 솔직히 고백했다: "눈을 뜨고 보시옵소서.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"(17).
8.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, 드러나지 않은 실재를 보았다: "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,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"(18-19).
9.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긴급한 간섭을 간구했다: "우리 하나님 여호와여,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"(20a).
10.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기도했다: "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"(20b).

▶지난 주 봉헌 내역(8월 23일-8월 29일)◀

십일조	월정헌금	감사헌금	목적헌금
이동훈, 이하임, 김학순			
총액 659,00유로 = 659,00유로(예배당) + 00,00(온라인)			